하나님의 질투와 두 접촉점

(민26:1~65)

1. 염병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총수를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에 이십 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하시니
3.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이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가 모압 평지에서 그들에게 전하여 이르되
4.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나온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이십 세 이상 된 자를 계수하라 하니라

51. 이스라엘 자손의 계수된 자가 육십만 천칠백삼십 명이었더라
52.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53. 이 명수대로 땅을 나눠 주어 기업을 삼게 하라
54. 수가 많은 자에게는 기업을 많이 줄 것이요 수가 적은 자에게는 기업을 적게 줄 것이니 그들이 계수된 수대로 각기 기업을 주되
55. 오직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누어 그들의 조상 지파의 이름을 따라 얻게 할지니라
56. 그 다소를 막론하고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나눌지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의 질투와 두 접촉점>이라는 제목의 하나님말씀 증거 합니다.

'하나님의 질투와 두 접촉점'
십자가 복음 방송을 들으시는 권사님들이 일 년에 분기별로 네 번 정도 격려차 강릉을 찾아오셔서 방송을 통해 들으시던 내용을 되풀이 하면서 삶 속에서 일어난 일들을 서로 간증들을 나누십니다. 그 중에 한 분이 말이 없으신 분이신데 언제나 대화를 할 때 보면, 그 분의 입 속에서 뱅뱅 맴도는 말씀이 있는데 잘 안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바로 "다순이 누나"라는 이름입니다. 기억하시지요? 오래전에 주기도문을 강해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옛날에 저희 집에서 가사 도우미로 일을 하셨던 1호 누나이름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에 동네에 나가서 놀다가 괜히 개에게 돌을 던지거나 해서 개가 쫓아온다든지 혹은 동네 형들에게 밉보여서 도망올 때마다 '다순이 누나! 다순이 누나!'라고 소리를 치면서 달려오면 다순이 누나가 빨래하다

가 빨래 방망이와 연탄집게를 양손에 들고 쫓아 와서 '누가 우리 철이를 못살게 구느냐?'라고 하며 다 해치워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 생활화의 기본 원리라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는데, 이 권사님이 말씀은 안 하셔도 '다순이 누나'라는 신앙원리를 꼭 붙잡고 계신다는 느낌을 제가 언제나 받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돈 문제가 내 마음을 물고 늘어지는데 그 돈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잘못 됐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마치 지나가는 개가 나를 물려고 하는데 으르렁대는 개를 품에 안고 다순이 누나를 찾아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자식이 마음에 신경이 쓰인다면 그 자식이 내 마음을 물고 늘어지는 개가 되는 것입니다. 자녀가 개는 아니지만 마음의 관계에서는 마음을 물고 늘어지는 개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나올 때에 내 마음을 물고 늘어져서 마음에 피를 흘리게 하고 마음에 고통을 주는 그 자식이라는 개를 안고 나와서 기도를 드려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잘못이라는 것이고, 내가 그 개를 끌어안지 않고 피해서 빨리 다순이 누나에게 와서 피해서 숨으면 그 문제는 내가 껴안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다순이 누나와 맞닥뜨리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신앙이고 십자가 복음에 입각한 삶의 원리이고 무한 반복 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이 단순히 하나의 비유를 통해서 설명되는 것뿐만 아니라, 신앙의 본질이 다순이 누나의 예처럼 진행된다는 것을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요3:16절이 모든 기독교 진리의 요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3:16절 말씀을 풀어놓은 것이 3:13~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라고 하십니다. 이것을 거꾸로 한 번 해봅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라는 말씀에서 '그' 대신에 돈을 믿는 자, 건강을 믿는 자, 권력을 믿는 자 등의 많은 것이 들어 갈 수 있습니다. 여기서 '믿는다.'는 것은 '마음을 준다.'는 것으로 돈에게 마음을 주고 건강에 마음을 주고 권력에 마음을 주는 것입니다. 마음을 주는 이유는 기쁨의 원천으로 믿기 때문이고 만족의 근거와 만족의 내용이 된다고 믿기 때문에 마음에 접촉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를 믿는 자'는 '예수님께 마음을 드리는 자'를 말합니다. 예수님께 마음을 드리면 마음이 만족하고 기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인데 돈에 마음을 주고 자녀에게 마음을 주는 이유도 돈과 자녀로 기쁘고 만족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마음을 예수님께 접촉해야 하는데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십자가에서 들리신 예수님께 마음을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뱀은 배를 땅에 붙이고 있는 한 뱀입니다. 나무로 기어 올라가더라도 어쨌든 뱀의 배가 전면적으로 땅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접촉을 일으킵니다. 그 '뱀이 들렸다'는 것은 '땅과의 접촉이 끝났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

는데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린다.'는 것은 '땅과의 접촉이 끝났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 세상에서 내 몸으로 만나는 대상들이 내 마음을 빼앗아 가려고 할 때에, 마음의 접촉이 일어나는데 예수님께 마음을 드린다는 것은 땅에서부터 마음을 떼는 것입니다. 마치 나를 물려고 다가오는 개와의 접촉을 피해서 다순이 누나 뒤에 숨는 것처럼, 돈 문제가 있으면 돈 문제와의 접촉을 피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마음을 드리는 것이고, 자녀 문제가 생기면 그 자녀 문제와의 접촉을 피하기 위해서 다순이 누나의 위치에 서 계시는 예수님께 달려가서 마음을 드리는 것인데 이게 믿는 것입니다.
접촉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몸과 몸이 접촉하지 않아도 내가 누군가를 마주하고 있다면 접촉이 일어났다고 볼 수 있는데 몸을 통해 일어나는 접촉이 있고, 마음에서 일어나는 접촉이 있는데 마음은 몸이 접촉하는 것에 접촉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몸으로 만나게 되는 모든 문제와 일과 사건과 대상들에게 물려서 빼앗길까 예수님께 마음을 드리는 것이 믿는 것인데, 예수님은 뱀이 땅에서 들려서 매달린 것처럼 십자가에 매달리셨기 때문에 땅에서부터 접촉을 피하여 예수님께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땅의 접촉을 피하여 예수님께 보내드린 마음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만 하늘에 있으셨고 하늘을 아시고 하늘로 가신다는 것입니다. 땅의 접촉을 피해서 예수님께 도망 간 마음들을 끌고 하늘로 가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라는 말씀은 그렇게 우리의 마음이 하늘로 올라가기 위해서 이제까지 뱀처럼 살면서 땅에 접촉하던 우리들이 땅에서 떨어져서 도망가야 한다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라는 말씀을 해주신 것인데 그대로 다순이 누나의 원리인 것입니다. 무슨 문제가 내 마음을 물려고 한다면 그것을 껴안고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 신앙의 자세가 아니라 도망치는 것이고 등을 돌리고 죽는 겁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에 무책임하게 모른척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 문제에 대해서 등을 돌리고 내가 주님께로 도망을 가면 그 문제는 나를 쫓아오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기고 인생에 탈이 생겼을 때에 술을 마셔서 잊는다면 그 문제는 도망갈 수가 없습니다. 그 문제는 내가 마음으로 잊는다고 해도 계속 나에게 와서 삶에 피폐함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내가 등 돌려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릴 때에 그 문제는 나를 쫓아오다가 반드시 하나님을 맞닥뜨리게 되고, 그 하나님께 가는 길은 주님을 통해서 이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 이야기했던 바알브올 사건에서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미디안 여자와 이스라엘 남자가 막사 안에서 간음하는 두 남녀를 창으로 찔러서 죽이게 되고 하나님의 질투하심으로 질투했다고 합니다. 사실은 이 '하나님의 질투'가 선민들을 향하신 하

나님의 모든 지시와 명령과 요구와 율법 속에 기본적으로 깔려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질투가 생기는 이유는 우리 마음이 몸이 접촉하는 것에 접촉할 때 하나님의 질투가 생기게 됩니다. 우리는 항상 삶에서 두 개의 접촉점을 안고 살아갑니다. 몸의 접촉점이 있고 마음의 접촉점이 있는데 선민은 이 세상에 살기 때문에 몸은 사람과 문제와 상황과 접촉하지만, 마음은 몸이 접촉하는 것에 접촉해서는 안 됩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던 발람의 궤계가 선민들에게 먹혀들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미디안이나 모압 사람들과 선민 이스라엘 간의 공통점이 무엇인가를 발람이 찾아냈습니다. 풍요와 다산을 향하여 마음이 열려있던 것이었기 때문에, 바알을 섬기나 여호와를 섬기나 마찬가지라는 식으로 발전하여 바알 숭배로 쉽게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바알 숭배를 하는 불신자들과 선민들이 쉽게 공통점을 가지게 된 이유는 근본적으로 마음이 풍요와 다산에 접촉해 있었던 것입니다. 불신자와 선민 간에 공통점이 생긴 것은 선민의 마음이 이 땅에 있는 것들 중에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접촉이 생겼던 것입니다. 선민의 마음이 뱀이 땅에서 들리는 것처럼 땅에서 들리면 그 어느 불신 민족과 불신 계급과 불신 그룹에서도 공통점을 찾을 수 없게 됩니다.

우리가 선교를 위해서 어느 민족이나 나라를 찾아가거나 믿지 않는 불신자들을 우리의 삶에서 만났을 때에 해야 될 일은 그들과 공통점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의 공통점이 있다면 그 공통점을 잘라 버려야하고 오히려 단절을 일으켜야 하는 것입니다. 공통점을 찾아서 나와 그 사람의 접촉점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불신자와 내가 공통점이 있게 되는 경우는 내 마음이 몸이 접촉하고 있는 이 세상에 대해서 따라가서 접촉할 때입니다. 몸이 돈 문제를 접촉하고 있을 때 내 마음도 같이 접촉하고, 몸이 자식 문제를 접촉하고 있을 때 내 마음도 따라가고, 몸이 건강 문제에 접촉하고 있을 때 내 마음도 따라갈 때 불신자들과 똑같은 공통점이 있게 되면서, 이 공통점을 마귀가 파고들어 우리를 피폐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공통점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선민은 이 땅에서 근본적으로 마음의 접촉점을 제거해버리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마음의 접촉은 하나님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의 동선을 따라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 길 이외에는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 한 가지의 주제를 반복하시고 강조하시기 위해서 나온 것입니다.

먼저 전쟁을 위해서 이십 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 육십만 천칠백삼십 명을 계수했습니다. 그 다음에 땅 분배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전쟁 전인데 가나안 땅을 다 정복했다고 치고 땅을 분배하는 이야기를 미리 하시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레위인들에게는 기업이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하십니다.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 정탐 사건 때문에 1차 시내산에서 계수했던 20세 이상의 모든 남자들은 여호수아와 갈렙 이외에는 한 명도 남지 않았다는 것을 다시 반복하시는데 하나님의 질투와 두 접촉점에 대한 주제를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먼저 가나안 땅으로 진입해 들어가면서 무찔러야 하는 가나안 일곱 족속과 같은 전쟁에 대해서는 신약성경에서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맞아 죽어 순교를 할지언정 이렇게 타 불신 민족을 죽이는 전쟁은 다시없습니다. 그러면 신약에서 없어졌다고 해서 구약의 전쟁의 의미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신약성경의 순교하는 순간에서도 이 구약성경의 오늘 말씀하시는 이 전쟁은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전쟁의 의미는 앞에서 모압과 미디안 족속에게 마음이 사로잡혀 끌려갔습니다. 육체로 만나게 되는 그 어떤 대상이든 물건이든 사건이든 내 마음에서 죽이는 것을 전쟁처럼 하라는 것입니다. 마음은 거기에 접촉하면 안 됩니다. '접촉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전쟁으로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심리적 덕목이나 마음의 어떤 움직임에 대한 원리를 말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든지 내 마음 영역 안에서 내 몸이 접촉하는 모든 대상들에 대해서 다 죽이는 전쟁이 일어나야 하는데 그 길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내 마음이 그것에 대해서 죽고, 그것들이 내 마음에 대해서 십자가에서 죽는 것입니다.

땅을 분배하는 것도 같은 의미입니다. 정복 전쟁에서 가나안 땅을 차지해서 지파별로 나누고 집안 별로 나누는데 이때에 제비를 뽑으라고 하십니다. '제비를 뽑는다.'는 것은 강이나 바다를 좋아하거나 평야나 산지를 좋아하는 판단과 기호가 있는데 제비를 뽑으면 나의 기호와 판단과 인격적 기질이 묵살되어 버립니다. 땅은 얻지만 내 마음으로 땅에 대해 판단하고 평가하고 소원하고 바랄 수 없고 그냥 주어지는 대로 받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될 너희 삶의 터전인 집, 밭, 직장에 대해서 마음의 접촉이 일어나면 안 되는데 제비뽑기에 죽으라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레위인 이야기를 하십니다. 레위인은 기업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땅을 분배하지 않을 것입니다. 땅을 분배해준다는 얘기를 해놓고 레위인들이 들으면 약 오르게 그다음에는 레위인들에게는 기업이 없다고 합니다. 레위인은 선민과 하나님간의 접촉점이 되는 사람들입니다. 성전에서 끊임없이 상번제를 드리는 것을 주 업무로 제비뽑기로 흩어져서 살게 된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상번제가 드려지는 성전으로 오게 하는 것입니다. 어린 양이 죽을 때 내가 죽는 것으로 생각해서 세상을 향한 나의 죽음이고 언제나 나는 하나님을 향해서만 사는데,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성전을 중심으로 일할 때에 선민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닿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제사장과 레위인 전체의 사역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으로 완성되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레위인들이 선민과 하나님의 접촉점이어서 이 일을 하느라고 땅에서 다른 직장을 가질 수 없었습니다. 우리들은 우리의 직장에 나가서 하나님과 불신자의 접촉점이 되

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눈앞에 보이는 불신자에게 접촉하지 않고 하나님께로 갈 때에 하나님의 마음이 불신자와 접촉할 수 있습니다. 다르지요. 레위인은 선민으로 드러난 자들과 하나님과의 접촉이 끊임없이 지속될 수 있도록 일하는 자들이고 요즘 목사님들이 그런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 복음 방송도 그런 기능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불신자와 하나님 사이에서 접촉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해야 할 될 것은 하나님의 질투를 유발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불신자를 향해 있어서 전도하고 싶은 마음을 갖기 전에 그 사람 앞에서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죽는 것이지요. 가족이든 직장동료이든 친구든 동창이든 상관없이 죽어서 먼저 하나님께 마음을 드립니다. 자꾸 내가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에 대한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보다 앞서면 하나님이 질투를 유발하십니다. 우리가 잘 구분해야 할 것은 잃어버린 양 한 마리에 대한 애착이 바알 숭배 때 다산에 대한 애착과 십중팔구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잃어버린 한 마리 양에 대한 마음을 끊어버리고 하나님께 먼저 접촉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나를 통해 표현되는 것이지 내가 잃어버린 양에 대한 애착을 갖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은 운명적으로 하나님 한 분과 먼저 접촉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되고 온전히 이루어지고 나면 하나님의 마음이 표현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사신 것입니다. 요3: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하십니다. 독생자를 통해서 하나님 사랑의 마음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지 독생자 자신의 마음이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나타납니다. 독생자는 이 세상에서 몸으로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마음을 그 사람과 접촉하지 않고 그 마음을 하나님께 드린 것이고 그 빈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내려 오셔서 독생자를 통해서 그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불신자와 접촉점이 돼야 하는 것일 뿐 불신자를 사랑해서도 안 되고 미워해서도 안 됩니다. 사랑해도 미워해도 마음을 빼기는 것은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마음의 접촉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다순이 누나 원리를 온 삶에 확장시켜 버리는 것입니다.

뱀이 들려야 되듯이 십자가에서 들린 예수님, 땅에서 배를 떼신 예수님처럼 잃어버린 어린 양도 내 자식도 내 가족도 배우자도 친구도 전부 땅에 있기에 배를 떼고 마음의 접촉을 피해야 합니다. 마음의 접촉이 일어나서 그를 사랑하고 그에게 마음을 주는 한 하나님의 질투가 다시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질투가 일어나면 우리에게 평강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기어코 질투를 끌 수 있는 행동을 내가 하지 않는 한 이만 사천 명이 죽은 것 같은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질투와 두 접촉점을 명심하시고 이것을 온전히 충족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몸이 만나는 모든 대상들, 몸이 접촉하는 모든 대상들, 몸의 접촉점의 모든 순간에 마음

은 주님을 따라 십자가를 통해 하늘과 접촉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권면하여 주시고 일깨워 주셔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여차하면 마음이 세상과 접촉하는 모든 순간들이, 날마다 죽는다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날마다 십자가에서 죽어 주님 따라 감을 통하여 극복되고, 하나님도 평강 나도 평강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도 하늘의 평강이 전달되는 복된 삶이 이루어지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